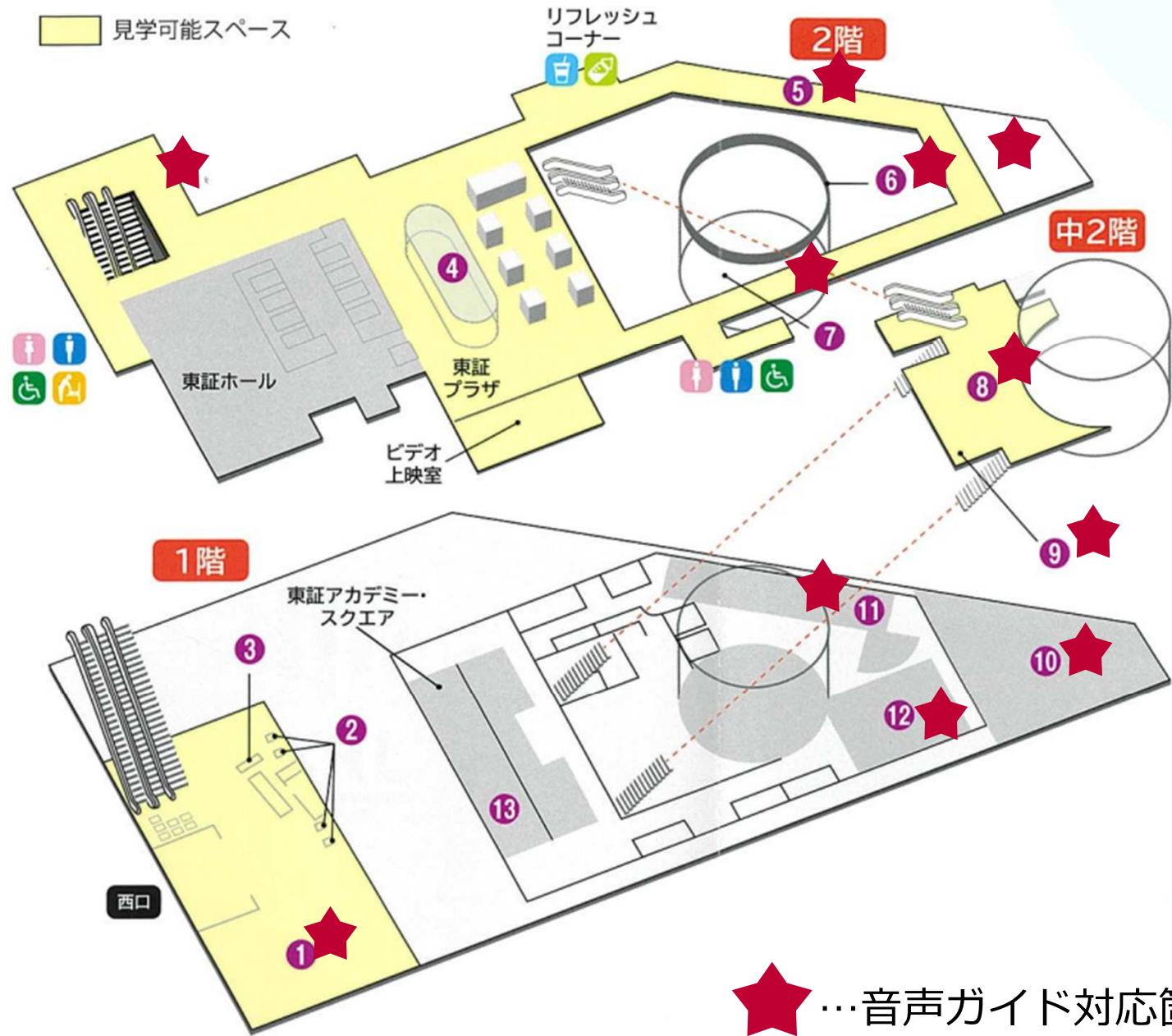


東証Arrows バイリンガル案内

日本語・韓国語

한국어 - 일본어

館内地図



1階部分

証券史料ホール（1）



明治・大正期

証券史料ホールでは、日本の証券市場のあゆみと東京証券取引所の歴史を裏付ける資料が、明治・大正・昭和と時代を追って展示されています。

明治時代になると、政府は近代的な国家を目指して次々と国の仕組みを改革しました。証券市場の開設もその一つです。

こちらには、当時様々な目的で発行された公債、東京株式取引所の開業当時の様子を詳しく表した絵巻物、国内初の上場会社の一つである東京株式取引所の株券、仲買人が着用していた半纏や今の入館証にあたる入場鑑札など、当時実際に使用されていたものを展示しています。

メイジ・ダイショウ時代

증권역사자료 훌에서는 일본 증권시장의 변천과 도쿄증권거래소의 역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1868년부터 1912년의 메이지시대, 1912년부터 1926년의 다이쇼 시대, 1926년부터 1989년의 쇼와 시대별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메이지 시대에 들어서 정부는 근대적인 국가를 지향하면서 차례로 국가의 틀을 개혁했습니다. 증권시장의 개설도 그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서는 당시 다양한 목적으로 발행된 공채, 도쿄증권거래소 개업 당시의 모습을 상세하게 나타낸 그림 두루마리, 일본 최초의 상장회사 중 하나인 도쿄주식거래소의 주권, 중개인이 착용했던 전통복식 중의 한 종류인 한텐이라는 옷과 오늘날의 출입증(입관 허가증)에 해당하는 입장감찰 등 당시 실제로 사용되었던 물건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証券史料ホール（2）



株券

こちらには、2009年の株券電子化により今ではもう使われることのなくなった株券のコレクションが収蔵されています。台紙に印刷されている模様をご覧ください。昔の株券には、企業の建物やロゴマーク、事業を表すイラストなどがデザインされたものも多く、株券のコレクターも存在します。「株券に見る今昔」ではパネルを引き出して100点を超える株券のコレクションをじっくりとご覧いただけます。

주권

여기에는 2009년 주권 전자화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쓰이는 일이 없어진 주권 컬렉션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두꺼운 종이에 인쇄되어 있는 모습을 봐 주십시오. 옛날의 주권에는 기업 건물이나 로고 마크, 사업을 나타내는 일러스트 등이 디자인된 것이 많아 주권 수집가도 존재합니다. ‘주권으로 보는 과거와 현재’에서는 각 패널에 담겨져 있는 100점이 넘는 주권 컬렉션을 천천히 상세히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証券史料ホール（3）



戦中・戦後

満州事変以降、15年にも及ぶ戦争の時代に入った日本では経済も次第に自由を失っていきました。1943年には全国11か所に存在していた証券取引所はすべて統合され半官半民の日本証券取引所となり、終戦直前まで取引は続けられましたが、1945年8月から売買立会は停止、1947年に日本証券取引所は解散となります。一方で財閥解体により大量の株式が一般に再配分され、証券民主化運動と相俟って、株式所有の大衆化が急速に進展しました。そして1949年5月、東京証券取引所での取引再開が認めされました。

第二次世界大戦後の出来事については、二階の回廊にも写真を展示しておりますのでご覧ください。

전쟁 시기 · 전후

1931년에 일어난 만주사변 이후 15년에 걸친 전쟁의 시대에 들어선 일본에서는 경제도 점차 자유를 상실해 갔습니다. 1943년에는 전국 11곳에 존재했던 증권거래소가 모두 통합되어 반은 정부, 반은 민간이 관리하는 일본증권거래소가 되었습니다. 종전 직전까지 거래는 이어졌으나 1945년 8월부터 매매 입회는 정지되었고, 1947년에 일본증권거래소는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재벌 해체로 인해 대량의 주식이 일반시민에게 재배분되어, 증권민주화 운동과 맞물리면서 주식 소유의 대중화가 급속하게 진전되었습니다. 그리고 1949년 5월, 도쿄증권거래소의 거래 재개가 승인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사건에 대해서는, 2층 복도에도 사진을 전시하고 있으니 함께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証券史料ホール (4)



コンピュータの導入

証券市場が再開された翌年の1950年、朝鮮戦争が勃発します。戦争特需で株式取引は大幅に増加し、手作業での事務処理が追いつかない状況となりました。そこでアメリカへの視察を経て1953年コンピュータを導入しました。

1974年には相場報道システムが稼働し、証券会社に直接株価を配信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またそれまで立会場内の黒板にチョークで書き込まれていた株価が電動式掲示板で表示さ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1982年には売買業務もシステム化。

さらに1990年には立会場事務合理化システムが稼働し、一定数量以下の小口注文はオンラインによる発注が可能となり、その後の証券事務のシステム化を加速していくことになりました。

컴퓨터의 도입

증권 시장이 재개된 이듬해인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전쟁 특수로 주식거래는 큰 폭으로 증가하여, 사무 처리를 수작업으로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시찰을 거쳐 1953년 컴퓨터를 도입했습니다.

1974년에는 주가정보송신시스템을 가동하여 증권회사에 직접 주가를 송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까지 입회장 내의 칠판에 분필로 쓰고 있었던 주가를 전동식 게시판으로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1982년에는 매매업무도 시스템화 하였습니다.

나아가 1990년에는 입회장 사무 합리화 시스템이 가동되어 일정 수량 이하의 소량 주문은 온라인으로 발주할 수 있게 되면서, 그 뒤 증권 사무의 시스템화가 가속되었습니다.

証券史料ホール (5)



旧建物

黒い模型は、東京株式取引所の建物です。長方形の市場館は1927年、円形の玄関が特徴的な本館は1931年に完成しました。ギリシャ式のこの建物は昭和初期の洋風建築の傑作とされ、兜町のシンボルとして親しまれました。

左側には株券売買立会場の模型があります。中には馬蹄型のポストと呼ばれる場所が14か所あり、ここに全国からの注文が集められました。この立会場は床がクッションフロア、天井はステンドグラスからの優しい光が入るようになっており、ここで働く証券マンにやさしい環境となっています。

옛 건물

검은 색의 모형은 도쿄증권거래소 건물입니다. 직사각형의 시장관은 1927년, 원형의 현관이 특징적인 본관은 1931년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식의 이 건물은 1926년부터 1989년의 쇼와 시대 초기 서양식 건물 중 걸작이라 평가받았으며, 이곳 가부토초 지역의 상징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왼쪽에는 주권매매 입회장의 모형이 있습니다. 안에는 말발굽형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포스트라 불리는 장소가 14곳 있으며, 여기에 전국에서 온 주문이 모였습니다. 이 입회장은 바닥은 쿠션으로 되어 있고, 천장은 스테인드글라스에서 부드러운 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 여기에서 일하는 증권맨들이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2階部分

3つの丸いプレート



この3つの丸いプレートは、左が「工業」、真ん中が「商業」、右が「農業」を表しています。

「工業」には歯車やハンマーが、「農業」には鎌や農作物が描かれていて分かりやすいのですが、真ん中の「商業」をご覧ください。羽の生えた蛇の絡みついたちょっと変わった杖がデザインされています。これで何故「商業」なのか分かりますか？

これはギリシャ神話に出てくる商業の神様「ヘルメス」、ローマ神話では「マーキュリー」が持っている杖なのです。

この3つのプレートは、東京証券取引所の一代前の建物に飾ってあったとても古くて貴重なものです。今の建物に1985年に建て替えたときに、ここに移設いたしました。

3개의 둥근 플레이트

이 3개의 둥근 플레이트는

왼쪽이 ‘공업’, 가운데가 ‘상업’, 오른쪽이 ‘농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업’에는 톱니바퀴와 망치가, ‘농업’에는 낫과 농작물이 그려져 알기 쉬운데, 가운데의 ‘상업’을 보십시오. 깃털이 달린 뱀이 뒤얽힌 독특한 지팡이가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왜 ‘상업’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상업의 신 ‘헤르메스’, 로마 신화에서는 ‘마케리’가 들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이 3개의 플레이트는 도쿄증권거래소의 한 시대 전의 건물에 장식되어 있던, 매우 오래되고 귀중한 물건입니다. 1985년, 현재의 건물로 개축되었을 때 이곳으로 옮겨졌습니다.



今日の前に広がっているこの空間を東証アローズといいます。広さは約1800平方メートル、高さは約15メートルあります。1999年まで、ここは「株券売買立会場」と呼ばれていて、大勢の証券会社の方が特殊な手のサインを使って、手作業での株の売買を行っていました。

中央に見える大きなガラスの筒はマーケットセンターといって、もともとは株取引の情報を監視するために作られた施設です。ガラスの上の電光表示はチッカーと言って、たった今取引が成立した株価が次々と表示されています。

ガラス越しに見える二階建てのアパートの様な施設は、メディアセンター。そして手前に見えるモノトーンのカーペットの敷き詰められた中二階の部分はオープンプラットフォームと呼ばれる多目的スペースです。

도쇼 애로우즈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공간을 도쇼 애로우즈라고 합니다. 넓이는 약 1800평방미터, 높이는 약 15미터입니다. 1999년까지 이곳은 ‘주권 매매 입회장’이라 불렸으며, 많은 증권회사의 직원 분들이 각 종목을 나타내는 독특한 손의 사인을 사용하여 수작업으로 주식을 매매했습니다.

중앙에 보이는 커다란 유리로 둘러싸인 공간을 마켓 센터라고 하며, 본래는 주식 거래 및 관련 정보를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유리 위의 전광판 표시는 ‘티커’라고 하며, 바로 지금 거래가 성립된 주가를 차례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2층 아파트처럼 보이는 시설은 미디어 센터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보이는 모노 톤의 카펫이 가득 깔린 2층 중간 부분은 오픈 플랫폼이라 불리는 다목적 공간입니다.



この2の写真は東証アローズの前身「株券売買立会場」時代のものです。

白黒写真は一代前の建物にあった立会場。中ほど左側に手のサインを使って売買している人が写っています。またこの時代は成立した株価を、その都度黒板にチョークで書いて表示していました。

左側のカラー写真は、今皆さんがいる、この建物の立会場時代のものです。一階部分はすっかり改装されて様子が変わっていますが、天井付近は今も昔のままで。

多い時には2000人近い証券会社の人が集まり活気のある取引が行われていました。

手作業での売買は徐々にコンピュータ化され、1999年に100%コンピュータ取引となり、翌2000年5月に東証アローズとして生まれ変わりました。

今はもう証券会社の方は誰もいらっしゃいません。

입회장

이 2장의 사진은 도쇼 애로우즈의 전신인 ‘주권 매매 입회장’ 시대의 사진입니다.

흑백 사진은 한 시대 전의 건물에 있었던 입회장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왼쪽을 보면 손의 사인을 사용하여 매매하고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또한 이 시대에는 매매가 성립될 때마다 주가를 흑판에 분필로 써서 표시했습니다.

왼쪽의 컬러 사진은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건물이 입회장 시대였을 때의 것입니다. 1층 부분은 완전히 새롭게 단장된 모습으로 바뀌었지만, 천정 부근은 현재도 옛날 그대로입니다.

많을 때는 약 2000명의 증권회사 직원들이 모여 활기차게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작업 매매는 서서히 전자화 되여 1999년에 100% 컴퓨터 거래가 되었으며, 이듬해인 2000년 5월에 도쇼 애로우즈로 재탄생했습니다.

지금은 증권회사 직원 분들은 한 명도 계시지 않습니다.

マーケットセンター



マーケットセンターは高さが10メートル、直径約17メートル、円周約50メートルの大きなガラスの円筒です。このようにガラス張りになっているのは市場の透明性や公正性を表しているからで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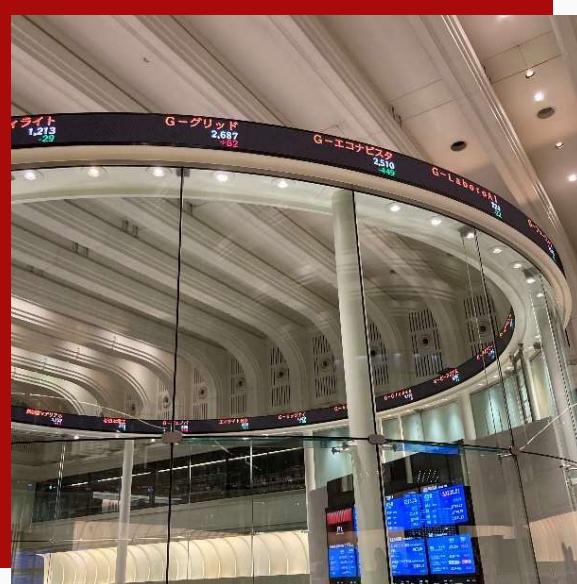
もともと株取引の情報を監視する場所として作られたもので、新型コロナの前はこのガラスの中に30人以上の職員がいて、おかしな値動きはないか、異常な注文はないか…と取引の間中監視していました。

ただ、コロナ禍で「密はいけない」とされたため、館内の違う部屋に移動しましたが、以前と同じ体制で監視を続けています。でも実は1人か2人だけ今もこの中で作業をしている人がいるのですが見つかりましたか？今は貴重になった東証アローズの中で働く人の姿です。もし席を外していたらごめんなさい！

마켓 센터

마켓 센터는 높이 10미터, 지름 약 17미터, 둘레 약 50미터의 큰 유리 원통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 이유는,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주식 거래 및 관련 정보를 감시하는 장소로 만들어진 것으로, 코로나 전에는 이 유리 속에 30명 이상의 직원이 있었으며, 수상한 가격 변동은 없는지, 이상한 주문은 없는지 등,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내내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밀집 방지’를 위해 건물 내의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이전과 같은 체제로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1명 또는 2명, 이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지금은 귀중해진 도쇼 애로우즈 안에서 일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만약 자리를 비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チッカー



チッカーは表示が回る株価ボードです。回る速度は4段階に設定されていて、取引が多くなると速く回るようになります。

表示の1段目は銘柄名、2段目はたった今成立した株価、3段目は前日の終値との比較です。

株価は一株の値段ですが、東証での株の売買は100株単位…と決まっていますので、株を買うときには2段目に表示されている数字×100が必要な金額となります。また3段目の比較の色使いですが、世界のマーケットでは一般的に株価が上がったときに緑、下がったときに赤を使います。日本では昔から紅白をおめでたい色とする文化がありましたので、上がったときに赤を使ってきました。同じように、赤をおめでたい色とする、中国、台湾、韓国でも上がったときに赤で表示しています。

티커

티커는 표시 부분이 회전하는 주가 표시판입니다. 회전 속도는 4단계로 설정되어 있으며, 거래가 많아질수록 빠르게 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줄에는 기업명, 둘째 줄에는 지금 성립한 주가, 셋째 줄에는 전날 종가와의 비교가 표시됩니다. 주가는 한 주의 가격인데,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주식 매매는 100주 단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식을 살 때는 둘째 줄에 표시된 숫자에 100을 곱하여 나온 숫자가 필요한 금액입니다. 또한 비교를 위한 셋째 줄의 색을 보면, 세계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주가가 오를 때 녹색, 내릴 때 붉은색을 사용합니다.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흥백을 경사로운 색으로 쓰는 문화가 있었기에, 오를 때는 붉은색을 사용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붉은색을 경사롭게 여기는 중국, 대만, 한국에서도 주가가 오를 때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マルチディスプレイ



マーケットセンターの中に見える大きな株価ボード：マルチディスプレイは70インチの大型モニターを16台組み合わせてある巨大なモニターで、東証での取引に関連する様々な情報を表示しているものです。

左上にJPXグループのロゴがあります。その下は、東証の3つの市場「プライム」「スタンダード」「グロース」それぞれの時価総額と上場銘柄数です。

その右側の「売買高」と「売買代金」は、今朝9時の取引開始から東証でどれくらいの取引が行われているかを表示しています。売買高は取引された株の数、売買代金はその金額です。

そしてその右側には、TOPIXや日経平均株価など、株価指数を表示しています。会社の株価を使って日本経済の動きを表しているのです。

下半分の画面は、取引時間中とそうでない時とでは表示が大きく変わります。取引時間中は黒い背景で大型株100銘柄の株価などを表示しています。取引時間外には青い画面に変わり、大阪取引所の先物市場や海外の市場の状況が表示されます。

멀티 디스플레이

마켓 센터 안에 보이는 커다란 주가판인 멀티 디스플레이는 70인치 대형 모니터 16대를 모아 한곳에 설치해 놓은 거대한 모니터로,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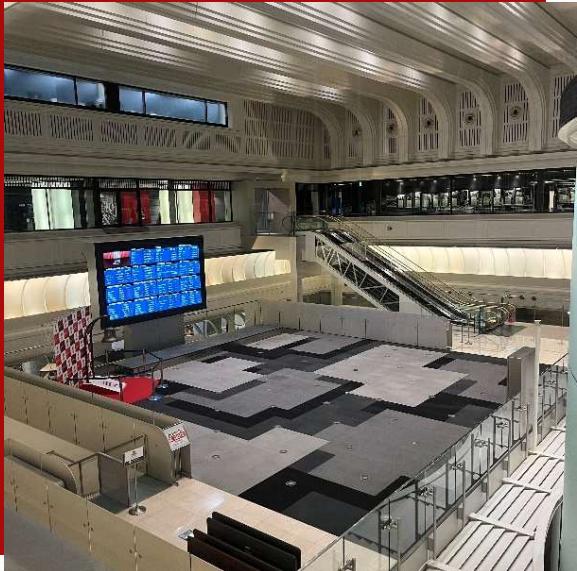
왼쪽 위에 JPX 그룹의 로고가 있습니다. 그 아래를 봐 주십시오. 도쿄증권거래소의 3개 시장인 ‘프라임’ ‘스탠더드’ ‘그로스’ 각 시장의 시가총액과 상장주식 수입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매매량’과 ‘매매대금’은, 오늘 아침 9시의 거래 개시부터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어느 정도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매매량’은 거래된 주식의 수량, 매매대금은 그 금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TOPIX와 닛케이 평균주가 등의 주가지수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가를 사용하여 일본 경제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화면의 하단 부분 절반은 거래 시간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표시가 크게 달라집니다. 거래 시간 중에는 검은 배경에 대형 주식 100종의 주가 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거래 시간 외에는 파란 화면으로 바뀌며, 오사카 거래소의 선물시장과 해외 시장의 상황이 표시됩니다.

オープンプラットフォーム



モノトーンのカーペットが敷き詰められている中二階のフロアはオープンプラットフォームと呼ばれる多目的スペースです。年末年始の「大納会」や「大発会」、そして年間を通じて行われている「新規上場セレモニー」という、企業が東証のマーケットに上場した初日の記念セレモニーもここで行われます。セレモニーの象徴でもある打鐘式に使われる鐘も今はここに常設されています。

オープンプラットフォームではマーケットセンターを間近で見上げてその迫力を体感することができます。またここにもマルチディスプレイが設置されていて、すぐそばで情報を確認することが出来ます。

売買が成立するたびに株価表示が点滅するのが分かりますか？リアルタイムでのマーケットの息づかいが感じられます。

오픈 플랫폼

모노 톤의 카펫이 가득 깔린 2층 중간의 플로어는 오픈 플랫폼이라 불리는 다목적 공간입니다. 다이노우카이라고 불리는 연말의 ‘마지막 거래일’과, 다이핫카이라고 불리는 연초의 ‘첫 거래일’기념 세레모니, 그리고 한 해를 통틀어 이루어지는 ‘신규 상장 세레모니’, 즉 기업이 도쿄증권거래소 시장에 상장된 첫날의 기념식도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세레모니의 상징이기도 한 타종식에 쓰이는 종도 오늘날에는 이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픈 플랫폼에서는 마켓 센터를 가까이에서 올려다보면서 그 박력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도 멀티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어, 바로 옆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 성립될 때마다 주가 표시가 점멸하는 것이 보이십니까? 실시간으로 시장이 숨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マルチディスプレイの左側にある古めかしい鐘は「上場の鐘」と呼ばれています。大納会や大発会など各種セレモニーの打鐘式で木槌を使って鳴らされていますが、特に新規上場セレモニーで使われる機会が多いことからこの名前で呼ば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セレモニーでは5回鳴らすことが決まりとなっています。穀物などの農作物が豊作になることを願った「五穀豊穣」という言葉にあやかって、上場する会社や証券界が発展しますようにという願いが込められているのです。

この鐘は昭和3年に作られた電動式の鐘で、当時は「立会開始電鈴」という名前だったことが記録に残されています。昭和10年ごろまでこの鐘を合図に取引を開始していたのです。第二次大戦中の金属回収令も免れて今にその姿を残してい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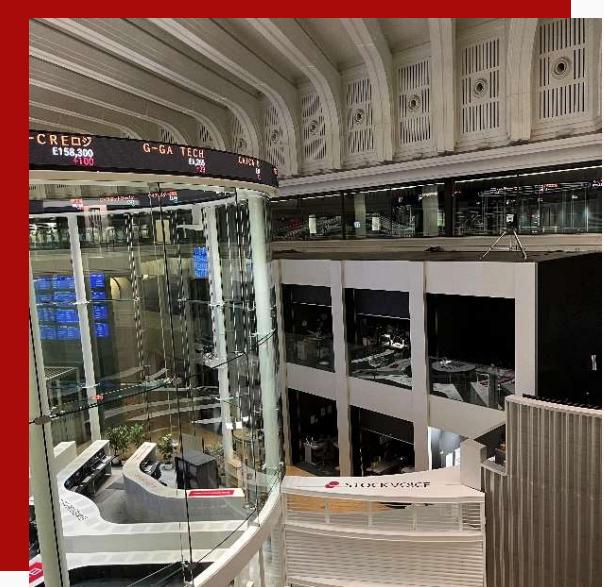
상장의 종

멀티 디스플레이 왼쪽에 있는 오래된 종은 ‘상장의 종’이라 불립니다. 다이노우카이와 다이핫카이 등 연말연시의 각종 세레모니의 타종식에서 나무 망치를 사용해 종을 치고 있는데, 특히 신규 상장 세레모니에서 사용되는 일이 많은 것에서 이러한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세레모니에서는 5번 종을 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곡물 등 농작물의 풍작을 기원한 ‘오곡풍양’이라는 말에서 따와, 상장하는 회사와 증권계가 발전하도록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은 1928년에 만들어진 전동식 종으로, 당시에는 ‘입회 개시 종’이라는 이름이었음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1935년경까지 이 종을 신호로 거래를 개시하고 있었습니다. 제2차 대전 시기의 ‘금속회수령’에도 무사히 보존되어 그 모습을 남기고 있습니다。

メディアセンタ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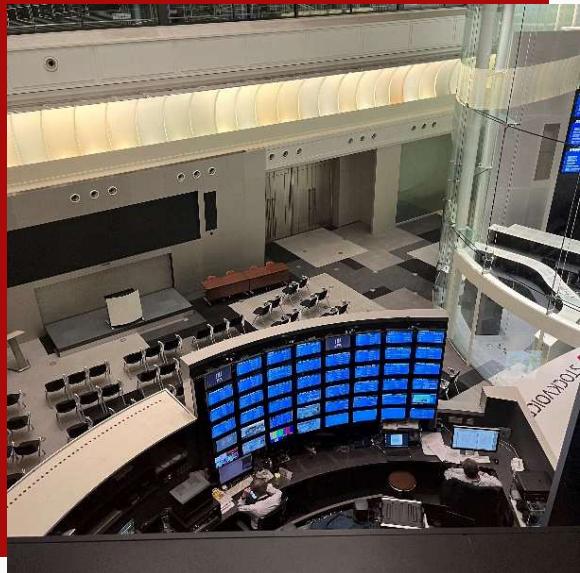


北側の回廊の下にある2階建てのアパートのような建物は、メディアセンターと言って、それぞれの部屋に日本の主要なテレビ局・ラジオ局のサテライトスタジオが入っています。1階の一番右の明るく照明がついているところは、マーケット専門チャンネルのストックボイスが入っていて、株取引が行われている間中、「東京マーケットワイド」という番組を生放送しています。

미디어 센터

북쪽 복도 아래에 있는 2층 아파트처럼 생긴 건물은 미디어 센터라고 하며, 각각의 방에 일본의 주요 텔레비전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의 위성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1층 가장 오른쪽의 밝은 조명이 달린 곳은 시장 전문 채널인 ‘스톡 보이스’가 있으며,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도쿄 마켓 와이드’라는 프로그램을 생방송 하고 있습니다.

コントロールルー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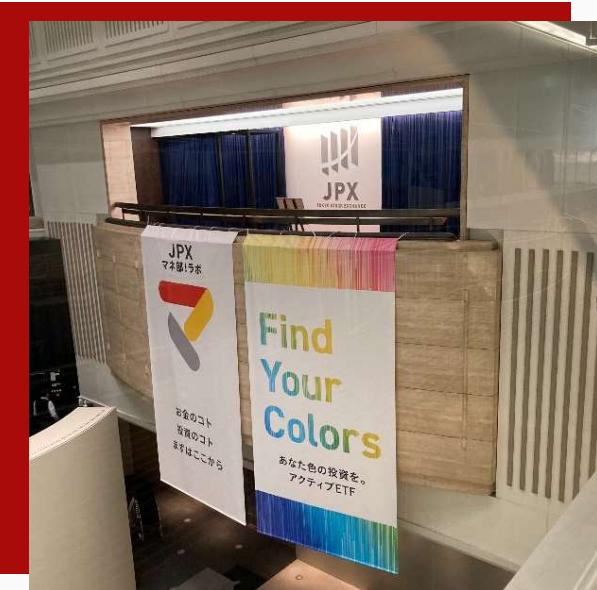
回廊から少し下を覗き込んでみてください。小さなモニターの集まっている秘密基地のような場所が見えませんか？

ここはコントロールルームといいます。東証アローズの中にはマルチディスプレイやチッカーなどの電光表示があります。その表示の指令はこのコントロールルームの中で行っているのです。背の高い方は覗き込んでみると中で働いている人の姿が見え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今は貴重になった東証アローズの中で働く人の様子をここで確認することが出来ます。

컨트롤 룸

복도에서 조금 아래를 들여다봐 주십시오. 작은 모니터가 모인 비밀기지 같은 장소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기는 컨트롤 룸이라고 합니다. 도쇼 애로우즈 안에는 멀티 디스플레이와 티커 등의 전광 표시가 있습니다. 그 표시에 대한 지시는 이 컨트롤 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키가 크신 분은 들여다봤을 때 안에서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지금은 보기 드물어진 도쇼 애로우즈 안에서 일하는 사람의 모습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回廊の東側にあるこのバルコニーはVIPテラスといいます。

上場の鐘は以前はこのテラスに設置されていて、新規上場セレモニーの締めくくりとしてここで打鐘式を行っていました。東証のマーケットに会社を上場させた人だけが立ち入ることを許された特別な場所だったのです。しかしこのテラスも狭いスペースであることから、新型コロナを機に上場の鐘はオープンプラットフォームに下されました。

ビロードのカーテンがかけられ、赤い絨毯が敷き詰められた重厚な姿が当時を偲ばせています。

VIP 테라스

복도 동쪽에 있는 이 발코니는 VIP 테라스라고 합니다. 상장의 종은 예전에 이 테라스에 설치되어 있어서, 신규 상장 세레모니의 마지막에 여기에서 타종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도쿄증권거래소 시장에 회사를 상장시킨 사람만 출입이 허용되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 테라스도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코로나를 계기로 상장의 종은 오픈 플랫폼으로 옮겨졌습니다. 벨벳 커튼이 처져 있고 붉은 융단이 가득 깔린 중후한 모습이 당시를 떠올리게 합니다.

プレゼンテーションステージ



プレゼンテーションステージは、主に上場会社の方にお貸ししているスペースで、決算の発表や企業説明会などが行われています。100インチの大型ディスプレイが3面配置されているほか、プロジェクターや音響装置、照明設備も備えられていて100人前後収容できるため、東証が主催するセミナーやイベントなどにも使われます。東証アローズの1階フロアにあるスペースなので、ここから見上げたマーケットセンターは圧巻です。

프레젠테이션 스테이지

프레젠테이션 스테이지는 주로 상장회사 분들에게 대여하는 공간으로, 결산 발표와 기업설명회 등이 이루어집니다. 100인치 대형 디스플레이가 3면에 배치되어 있으며, 프로젝터와 음향장치, 조명설비도 갖추고 있어 100명 전후의 인원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쿄증권거래소가 주최하는 세미나와 이벤트 등에서도 사용됩니다. 도쿄 애로우즈 1층 플로어에 있는 공간으로, 여기에서 올려다본 마켓 센터의 모습은 실로 장관입니다.



東口玄関は東京証券取引所のシンボルと言える場所。建物の写真は大抵この玄関の外から撮っています。そしてここは東証の金運スポットでもあるのです。実はこの玄関、厳密には南東の方角を向いている玄関なのです。バルコニーから下を覗いてみてください。1階の床に十二支の円盤があるのが分かりますか？少し見えづらいのですが、辰と巳（へび）の間、辰巳の方角を向いているのが分かります。風水では辰巳の方角に玄関を構えるとその家には良い運気が入ってくるとされているのです。

また天井をご覧ください。扇形のステンドグラスがはまっていますね。この玄関は扇型をしているのです。そしてその扇が東証アローズの方向に向かって広がっています。この末広がりの形もとても縁起が良いので、東口は東証の金運スポットとされているのです。

동쪽 출입구

동쪽 출입구 현관은 도쿄증권거래소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건물 사진은 대체로 이 현관 밖에서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도쿄증권거래소의 금전운 명소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현관은 엄밀하게 보면 남동쪽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발코니에서 아래를 들여다봐 주십시오. 1층 바닥에 12간지의 원반이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조금 보기 어려우시겠지만, 진사오미의 [진]인 용과 [사]인 뱀의 사이, 즉, 진사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진사 방향에 현관을 두면 그 집에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정을 봐 주십시오. 부채 모양의 스테인드글라스가 끼워져 있지요. 이 현관은 부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채가 도쇼 애로우즈 방향을 향해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끝이 펼쳐진 형태 또한 행운을 부르는 것으로, 동쪽 출입구는 도쿄증권거래소의 금전운 명소라 불리고 있습니다.